

SEIU 2015 모두를 위한 정의 일괄 결의안

SEIU 로컬 2015 는 장기간병인, 가족, 커뮤니티의 단체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테크날로지를 연마하고, 모두를 위하여 좀더 정의로운 사회로 영구적으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부당한 현재 상황을 붕괴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세우는 캘리포니아의 장기간병인 단체이며,

2017 년에 SEIU 로컬 2015 는 경제정의와 근로자 정의, 주택공급 정의, 이민자 정의, 회복적 정의, 환경 정의, 이후 추가한 장애 정의 등으로 정의안건으로 알려진 단체적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초창기 회헌과 회칙을 만장일치로 투표하였고,

우리나라가 깊은 분열된 시점에서 SEIU 로컬 2015 회원은 정의 안전과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장기간병인, 가족, 커뮤니티를 전부 단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정의 안전과 모두를 위한 정의를 이루는 성공의 열쇠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붕괴할 강력한 근로자 운동을 펼치는 일에 달려 있다. 따라서, 노조의 역량을 신장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온전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모두가 장기간병 접근성이 있고, 장기간병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 받고, 정의롭게 보상받게 되며,

모두를 위한 노조

모든 이가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캘리포니아의 백 오십만 명 장기간병인이 노조 일원이 아니며 따라서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혜택을 협상 하지 못하며,

캘리포니아의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이 노조로 대표받지 못하고, 더 나은 급여, 혜택, 근로 조건을 협상하지 못하며,

캘리포니아 간병인의 수준을 높이는 노조의 능력은 수백만 장기간병인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붕괴하는 능력에 달려 있고,

SEIU 로컬 2015 회원이 비노조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지식과 방법을 교육받고 그들을 초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인가된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목적으로 전례없이 노조에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가 노조를 만들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와 전국적으로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여 장기간병인이 노조를 조직하게 하며,

SEIU 2015 는 노조의 다양성과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비노조 장기간병인을 조직하는 고유한 입장이며,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400,000 명 장기간병인을 대표하는 SEIU 로컬 2015 는 투표하여 민주주의의 온전한 참여자가 됨으로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SEIU 로컬 2015 회원은 선거 때만이 아닌, 일년 내내 민주주의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SEIU 로컬 2015 는 민주주의에 온전한 참여를 확장하는 주 전역과 지방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SEIU 로컬 2015 는 선거권과 온전한 민주주의 참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타인이 똑같이 하도록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으며,

장기간병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챔피언을 선출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간병인이 존중 받고 인생을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SEIU 로컬 2015 민주주의 캡틴은 민주주의에 온전한 참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노조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 협박과 유권자 억제를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 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SEIU 로컬 2015 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모두 민주주의의 온전한 참여자가 될 능력을 부정하는 구조적 인종차별을 없애는 일을 굳게 믿으며,

SEIU 로컬 2015 는 일반 유권자보다 뒤처지는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청년의 투표 성향을 늘리는 일을 일순위로 할 것이며,

인가된

SEIU 로컬 2015 는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되는 캘리포니아의 2 백 5 십 만 명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민주주의의 온전한 참가자가 될 권리를 얻도록 돕는 일에 힘쓰며,

캘리포니아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과 유권자 참여를 늘리게 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온전한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 할 일이 더욱 많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장기간병

SEIU 로컬 2015 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개인주택과 숙련 양로병원과 요양원에서 400,000 명의 장기간병인이 노인과 장애인을 간호하는 전국 최대규모 장기간병인 노조이며,

캘리포니아는 2030 년까지 양로원에 사는 노인을 106,500 명으로 예상하고, 이는 2012 년부터 15,000 명이 (16%) 늘어난 것이며,

2015 년부터 2030 까지, 캘리포니아의 65 세 이상 주민은 5 백 2 십만명에서 9 백만명으로 73%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 년까지 캘리포니아의 백만명 이상 노인은 일상생활 활동 (ADLs)과 장기간병 서비스 및 지원 (LTSS)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연세든 성인에 추가로, 더 젊은 성인 장애인 수는 주에서 앞으로 20 년 동안 20%가 늘어날 전망이고,

장기간병일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고되고, 또한 메디케이드 자금으로 지원받는 재택간병지원서비스 (IHSS) 프로그램, 숙련된 양로병원과 요양원 시설, 개인 간병 에이전시, 무보수 가족 간병 등으로 여성, 유색인종 근로자가 불균형적으로 하는 일이며,

저임금과 교육기회 부족으로 재택간병과 양로병원 업계에 지속 불가능한 이직 추세를 만들었으며 직종에 들어올 잠재적인 신입 간병인은 단념하게 하고,

캘리포니아는 늘어나는 재택간호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30 년까지 600,000 명에서 3 백 2 십만 명 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주에서 IHSS 와 개인 간병 에이전시의 간병인은 600,000 명 이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보수 간병인의 숫자는 훨씬 더 많으며,

캘리포니아는 2026 년까지 공인간호보조사가 최소한 15,800 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며,

인가된

주 전역에서 약 1,100 개의 숙련 양로병원(SNFs) 중에서 465 개의 SNF 가 (42%) CAN 최저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IHSS 와 숙련 양로병원, 개인에이전시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충원 받지 못하고, 박봉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며,

2017 년, 캘리포니아의 가족 간병인은 가족, 배우자, 파트너, 그 외 성인에게 약 6 백 3 십 억 달러에 해당하는 4 십 억 시간의 간호를 제공하였으며,

장기간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해물에 더하여, 노인과 성인은 비슷하게 LTSS 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40 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의 56%는 장기간병 저축계획이 없고, 캘리포니아 주민의 37%는 간병비를 지급할 저축금이 없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캘리포니아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며, 저렴한 양질의 장기간병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감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정의 안전을 승리해내고 추진하기 위하여 수백만명의 장기간병인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쓰며, 따라서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요청을 강력히 하고 키우게 된다. 다음과 같이 하여 그것을 해낼 것이다.
 - a. **노조를 조직할 권리 확장.** SEIU 로컬 2015 는 장기간병인이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법과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b. **노조 운동 펼치기.** 장기간병인이 존엄하게 살 권리와 자유롭게 조직할 능력을 요구하는 노동, 신앙, 커뮤니티, 장애, 청소년 단체 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c. **노조 조직력 신장.** SEIU 로컬 2015 는 차세대 회원 조직자를 발굴하고 개발하며 회원 지도자가 직장 커뮤니티에서 비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자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준비시킬 것이다.
2. SEIU 로컬 2015 회원은 민주주의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노력하여, 캘리포니아 장기간병인의 정치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하여 그것을 해낼 것이다.

- a. **챔피언 선출.** SEIU 로컬 2015 회원은 장기간병 챔피언을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장기간병인이 존엄하게 존중 받고 살게 한다.
 - b. **민주주의 캡틴과 회원 지도자 준비시키기.** SEIU 로컬 2015 회원은 민주주의 캡틴과 회원 지도자가 정치적 변화와 커뮤니티의 변화에 유능한 대리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와 지식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
 - c. **온전한 참여를 지지하기 .** SEIU 로컬 2015 는 유권자 교육, 유권자 등록, 유권자 참여, 시민권 증가를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는 정치적 절차에서 방해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여성, 유색인종, 이민자가 정치적 절차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지지할 것이다.
 - d. **후보자 발굴과 모집.** SEIU 로컬 2015 회원은 공직에 출마하여 커뮤니티 지도자가 될 장기간병인을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SEIU 로컬 2015 는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를 위한 장기서비스와 지원**을 지지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집에서 살면서 존엄하게 늙어가야 하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장기간병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려다가 가족이 파산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4. SEIU 로컬 2015 은 모든 노인과 장애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필요한 장기간병을 받기 위하여 노화 매스터 플랜으로 곧 닥칠 LTSS 수요와 압박한 장기간병인 공급부족을 해결할 정책방안을 시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제한하지 않으나 포함해야 한다.
- a. **양질의 노조 일자리와 중앙적 교섭 .** 근로자와 경제 정의, 양질의 노조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한다. 노동계층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장기서비스와 지원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간병인이 생계를 유지할 급여와 혜택, 퇴직이 있게 되고, 캘리포니아의 단체교섭에서 목소리를 확대할 중앙적 방법이 생기게 된다.
 - b. **소비자 목소리.**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c. **안정적인 재원.** 장기간병 서비스와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온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모시는 소비자와 제공인, 가정에 가장 필수적이다. 주정부 일반기금에 더이상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간병 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을 정립해야 한다.

- d. **책임감과 투명성.** 장기간병서비스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고용주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장기간병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액수의 공적자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와 에이전시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여, 노인을 보호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고품질 간병을 받게 한다.

- e. **다중체계 통합.** 캘리포니아 장기간병의 분열된 체계는 소비자와 제공인 모두에게 심각한 방해물이다. 소비자가 양질의 간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소외된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행정을 통합하여 체계를 다듬어서, 소비자 접근성, 경제적 건실함, 효율성, 제공인이 서비스 규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돕게 될 것이다.